

# 電力自立基盤구축에 創造的 努力있어야

– 安全管理와 에너지절약에도 앞장서도록 –



崔 昌 洛  
(동력자원부 장관)

尊敬하는 의원님 여러분. 內外貴賓 여러분 !

그리고 電氣關係 人士와 韓國電力公社의 任職員 여러분 !

오늘 뜻깊은 韓國電氣100년을 맞이하여 電力事業發展에 獻身하여온 여러분을 모시고 祝賀와 激勵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887년 乾清宮에서 6 kW급 蒸氣發電機가 처음으로 運轉된 이래, 우리의 電力事業은 發展을 거듭하여 이제 1,800만kW의 設備容量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開化期 초에 여러가지 歷史的 사건들이 많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신기함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던 電氣事業은, 國民들의 科學文明과 技術應用에 대한 實際的 認識과 思考樣式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획기적인 契機의 하나가 되었다고 確信합니다.

또한, 그후 產業의 原動力으로서 經濟發展을 착실히 지원하고, 國民文化의 暢達과 國民生活便宜水準의 向上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電力事業의 發展과 신장에는 많은 어려움을 克服하고 試鍊을 이겨내는 電力人 여러분들의 굳건한 意志의 持續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1973년의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우리는 燃料의 安定的 確保問題를 凡常하게만 느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對應方案의 하나로 原子力發電所建設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今年中에 8호기까지 竣工되면 原子力設備는 570萬kW에 이르러 電力設備의 30%, 發電量 構成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1948년 5월 14일 北韓側이 일방적으로 斷電을 단행했을 때와 6.25動亂으로 인하여 發電設備의 절반이상이 破壞되었을 때, 우리의 노력과 犠牲은 눈물겨운 發展歷程의 한 토막이자 우리의 珍持의 한 章으로 길이 國民들의 記憶 속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60년대에 들어 經濟發展計劃이 推進됨에 따라 電力需要는 연평균 20% 이상씩 대폭적으로增加하기始作하였으며, 이에 所要되는 電力を 供給하기 위하여 電源開發計劃을樹立하고, 人力 및 技術의 不足, 所要資材 調達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電力設備의 擴充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벅찬 일을 해낸 기억도 아직 새롭습니다.

그 過程에서 때로는 供給不足을 調節하기 위해, 制限送電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충도 있어서 國民 여러분께 송구했던 일도 이제는 하나의 추억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農漁村電化促進法의 제정을 계기로 農漁村電化事業을 推進한結果, 現在 전화율이 99.7%에 이르게 되어 농어촌 生活과 文化水準의 向上 그리고 都·農間의 隔差를 줄이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한편, 1978년 4월에는 古里原子力 1호기가 竣工되어 이땅에서 처음으로 原子力發電을 시

작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電力供給에 있어 획기적인 일로 記錄될 것입니다.

1973년의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우리는 燃料의 安定的 確保問題를 凡常하게만 느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對應方案의 하나로 原子力發電所建設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今年中에 8호기까지 竣工되면 原子力設備는 570萬kW에 이르러 發電設備의 30%, 發電量 構成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발전원의 構成은 원자력, 유연탄, 石油, 水力 등으로 다원화되어 에너지 위기에 彈力的으로 對應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電力を 보다 싸게 供給할 수 있는 體制가 構築되어가고 있습니다.

親愛하는 電氣人 여러분 !

오늘 우리는 지난 電氣100년의 意義를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展望과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같이 關心을 갖고 노력해야 할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電源開發計劃을 可能한 限 正確하게樹立하는 일입니다. 電力事業은 資本集約的인

“ 現在로서는 發電所建設에 있어 設計用役, 機資材 國산화율 등이 아직도 그리 높은 수준에 있지 않으며 國內 投資財源의 부족으로 投資費의 상당한 부분을 外國借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연료 國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만, 핵연료 주기의 一部에 대한 國產化에 不過한 實情입니다.”

大規模 投資事業이어서 建設期間이 길고 投資回收가 長期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長期電源開發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將來의 經濟, 社會, 에너지여건을 正確히豫測해야 합니다.

그리고 過多 또는 過少 供給狀態를 만들지 않고 그럼으로서 막대한 資本의 浪費와 經濟活動의 차질을 초래할 憂慮를 배제하기 위하여 事前에 치밀한 計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發電源의 부적절한 選擇은 發電費用을 높여 窮極的으로 國民들의 負擔을 加重시키는結果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長期電源開發計劃은 치밀하고 正確한 預측지식을 갖고 이를 活用하여 計劃을 樹立집행하는데 모든 知慧와 力量을 傾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電力供給의 自立基盤을 擴充해 가는 일입니다. 賦存資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자립도 提高가 장차의 重要한 政策課題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國民所得도 크게 향상될 것이므로 國民의 電力選好는 늘 것이豫想되며 따라서 에너지중 電力이 차치하는 比重도 높아갈 것입니다.

늘어나는 電力需要에 대응하여 供給의 확대를 自體能力으로 充當해 갈 수 있다면 이는 곤

國家에너지 自立에의 始作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現在로서는 發電所建設에 있어 設計用役, 機資材 國산화율등이 아직도 그리 높은 수준에 있지 않으며 國內 投資財源의 부족으로 投資費의 상당한 부분을 外國借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연료 國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만, 핵연료 주기의 一部에 대한 國產化에 不過한 實情입니다.

앞으로 電力供給의 自立基盤을 구축해 갈에 있어 電氣人 여러분들의 創造的인 努力과 透徹한 使命感이 있어야 함은 물론, 미흡한 부분부터 堅實하게 改善 補完해 나가는 정책을 우리는 開發 推進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電氣品質의 向上과 安全管理에도 각별한 유념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電氣品質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向上되어 거의 先進國水準에 이르고 있기는 하나, 產業이 고도화되고 精密化 되어감에 따라 電氣의 品質向上에 대한 要求는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요구에 副應하여 電氣의 品質向上을 위한 노력을 계울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오늘 한국전기 100년을 맞이하여 전기인 여러분 모두가 지난날에 이룩  
했던 거대한 業績을 바탕으로 새로운 發展의 實績을 쌓아서 後代에 길  
이 남기고 우리나라가 世界속에 당당한 先進된 나라로 跳躍하는데 일익  
을 擔當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安全管理에 보다 關心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發電源이 石油中心에서 원자력 중  
심으로 점차 移行됨에 따라 원자력 發電施設의  
安全性 問題는 꼭 중요한 課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전 設計段階에서부터 使用후 폐기  
물의 처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完全한 安  
全對策이 講究되고 이행되어 國民들이 安心하  
고 원자력발전의 能率과 效率성을 認識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이 외에도 電氣의 使用過程  
에서 發生하는 安全事故豫防을 위하여 設備의  
點檢活動을 強化하고 電力使用合理化를 지속적  
으로 推進함으로써 國民에 대한 奉仕水準을 向  
上시켜 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에너지 소비절약에 힘쓰고 啓導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에너지의 對外依存  
度가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姿勢와 에너지를 効率的으로 利用하는 知  
慧가 必要한 나라입니다. 餘裕電力이 있다는  
理由만으로해서 浪費要因을 고치지 않는다면  
產業體의 發展과 國際收支 黑字基調 定着化에  
도 도움을 주지 못할뿐만 아니라 產業의 對外  
競爭力を 높이는 데도 지장을 주게 될 것임을  
잘알아야 할 것입니다.

電氣人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 가까운 將來에 나라의 先進化  
를 이룩하고자 온 國民이 슬기를 모아 힘찬 前  
進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기 100년  
을 맞아하여 전기인 여러분 모두가 지난날에  
이룩했던 거대한 業績을 바탕으로 새로운 發展  
의 實績을 쌓아서 後代에 길이 남기고 우리나라가 世界속에 당당한 先進된 나라로 跳躍하는데  
일익을 擔當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電力  
事業의 發展을 위하여 애써주신 韓國電力公社  
任職員 여러분과, 電力事業에 從事하고 계셨던  
그리고 그일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致賀와 激勵의 말씀을 드리며, 電力產業  
의 發展에 獻身의인 努力を 하여 榮譽로운 褒  
賞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內外貴賓 여러분  
의 앞날에 榮光과 幸運이 있기를 祝願하면서,  
致辭를 마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87. 4. 10